

연구생활 속昔之感

河 大 有

〈全北大 醫大교수 · 미생물학〉

16년전 나는 청운의 꿈을 안고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현대 세포면역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웁스만」교수 지도하에 세포면역학을 공부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김포공항을 떠났다.

이때 나는 全南의대에서 조교수로서 면역학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학생시절에는 어렵다고 느껴졌던 면역학이 그뎨 쉽게 느껴졌고 논리정연한 기전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하는 것을 즐겼다. 또 젊었던 시절이라 자신감도 있어 학생들로부터도 평판이 좀 괜찮은 편이어서(?) 으쓱한 기분도 있었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면역학적 관용(tolerance)이었다. 면역계(Immune System)가 自我(Self)와 非自我(non-self)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아에는 면역학적 관용을 베풀어 거부반응과 같은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나, 非自我 세포 또는 조직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며, 만일 면역계가 自我와 非自我를 認知할 능력을 상실하여 自我에 대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면 류마티드 관절염과 絲體腎炎과 같은 自家免疫疾患(Autoimmune disease)를 일으킨다는 멋진 학설이었다.

나는 이 학설에 심취하였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심정은 교과서를 통해서 강의할때 뿐이고, 면역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읽을려고 하면 이해 못하는 새로운 용어가 가득하여 학설은 커녕 용어조차 알 수 없었다. 이때

나는 학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내심 이거 큰일났구나 생각했으며, 교단에 서기가 심히 무서웠다. 실례될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새로 출현하는 면역학 용어와 학설, 그리고 과학적 기술을 이해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누구에게도 이것에 관하여 배울 수도 없었다.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준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였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면역반응조절과 면역학적 관용에 관한 연구분야에 독보적인 석학인 예일대의과대교수이며 당시 미국면역학회 회장이던 「웁스만」교수께 위에서 말한 나의 심정을 솔직하게 쓴 편지를 보냈다. 편지가 오고가곤 하다가 초청장을 받고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다.

그의 연구실에 도착하니 불란서, 독일, 이스라엘, 일본, 중국, 칠레, 알헨틴 및 인도 등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학자들이 모인 Cosmopolitan lab이었으며, 서로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이 경쟁의 와중에 뛰어난 것이다. 약 1주일간의 실험실 적응 및 파악기간이 지난후 실험에 착수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값비싼 실험기구가 많았는데, 그 사용방법을 잘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다. 특히 한국사람이 기계를 고장냈다는 말을 들을까봐 Manual을 읽고 읽어서 守則을 숙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실험기구에 대한 코스가 있어 참여하였는데 어려운 물리학과 전기 등에 관한 이론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筆者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전국 각 의과대학 연구시설은 너무나 빈약했고 형광 현미경이나 냉동원심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거의 없었으니,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하튼 경쟁적으로 주말도 없이 열심히 실험에 임하였다.

유명 전문학술지에 그동안 일했던 번역조절 세포인 억제T세포(Suppressor T Cell)에 관한 나의 처음 논문을 제출하여 채택되었을 때의 눈물겨운 나의 감격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논문별책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여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이때야 조국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다. 수년의 연구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려고 할 때, 「웍스만」교수가 Cape Code의 Woodshole에 있는 그의 별장에 나를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어 주었고, 만찬후는 단 둘이서 산책을 하였다.

언제나처럼 한국에 돌아 가면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고 묻고, 필요한 동물과 시약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학교의 연구시설에 관하여 하나하나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가 민망스러웠다. 「없음」은 「있음」의 처음이라고 하니, 없어도 있다고 대답할까 망서리다가 비록 창피하더라도 솔직하게 없다고 대답했다.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의 한숨 소리는 더 컸으리라.

둘이는 말 없이 걸었다. 오랜 침묵 후에 그는 말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귀국하지 말고 계속 이곳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귀국하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서 좋았고, 스승, 선배,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고, 조국의 품이 좋았다. 학교의 시설은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다. 학교에서 정성껏 새로 마련해준 새로 단장된 나의 조그마한 연구실 의자에 앉아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것은 귀국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미국으로 다시 갈가도 생각해 보았다. 하고 싶은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강의라도 충실히 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했다.

어언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우리나라 각 대학교는 차관으로 도입한 많은 실험기구를 갖추고 있다. 15년전에 이렇게 실험실습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나도 더 많은 연구업적을 올릴 수 있었으련만...

이 좋은 연구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연구하고 있는 후배와 제자들이 부럽기만 하다. 그들은 기구의 소중함을 우리들처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입버릇처럼 실험기구를 아끼고 소중히 보관하여 사용하라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한다. “우리때는 기구가 없어서 노벨상을 탈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자네들은 변명할 수 없을 것이네”라고.

이제 실험기구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으니 연구비 지급을 높이고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명실공히 선진국수준으로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켜서 각 분야의 유명학술지에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논문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학의 진흥을 통하여 국력이 신장되어지길 바라며,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세포면역학의 진수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웍스만」교수께 감사한다.